

5. 전설

1) 나라실, 날라실, 비량리(飛良里)

신라 진흥왕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비량현(飛良縣)의 소재지로 전해지며, 마을 입구에 있는 우물에서 학(鶴)이 날아갔다 하여 날라실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나라실’은 날라실의 변음이며, 한자(漢字)로는 비량리(飛良里)로 표기한다.

2) 물방앗골

이 마을의 자연부락으로 마을 입구에 물방아가 오래도록 있었다 하여 물방앗골 또는 물방아골로 부른다.

제7절 월송1리(月松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북쪽은 월송송림(月松松林)의 북쪽 끝에 군무봉(軍舞峰)이 있고, 동해로 흐르는 황보천(黃堡川) 하류와 맞닿아 있다. 남쪽은 남산(南山)과 남산리(南山里)가 있다. 동쪽은 저장(猪場)과 직고개리(直古介里)의 뒷산과 접하며 그사이에 월송평야, 남산들(南山野)이 있다. 북으로 월송2리와 경계를 하고, 서쪽으로 일출봉(日出峰) 지맥(支脈)을 뒤로한 동향의 마을이다. 마을회관은 2006년에 신축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관동팔경의 하나인 월송정(越松亭)⁹과 평해 황씨 시조단이 있으며, 울진의 대표적인 전통 대동놀이인 ‘월송큰줄댄기기’가 전승된다. 최근 월송포진 유적이 발굴되었다.

2. 마을의 역사

평해군 하리면(下里面) 신립역리(新立驛里)로 그 후 달효리(達孝里)로 되었다. 1914년에 행정구역개편에 의한 군(郡)의 통폐합으로 울진군 평해면 월송리(月松里)로 편제되었으며, 1944년에 행정구역리개편(里改編)으로 월송리가 1리·2리·3리로 분구(分區)되어, 월송1리가

9. ‘월송정’은 울진 지방의 문헌에서 ‘越松亭’과 ‘月松亭’으로 혼용되어 나타난다.

되었다. 1980년 12월 1일[대통령령 제10050호]에 평해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평해읍 월송1리로 되었다. 고려 때에 삼척 김씨(三陟金氏)가 마을을 개척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3. 가구 분포

총 156세대가 거주하며 김해 김씨(金海金氏)와 평해 황씨(平海黃氏), 평해 손씨(平海孫氏)가 주로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동제(洞祭)

매년 음력 정월 15일, 음력 5월 5일, 연 2회 동제(洞祭)를 올리고 있다.

5. 전설

1) 샘골(井山), 행잇골

월송1리의 자연부락으로 딱재(平月山楮田)에 향교(鄉校)가 세워지고 제향을 올리게 된 후부터 행잇골로 부르게 되었다고도 전하며, 마을의 지형(地形)이 우물 정자(井字)와 비슷하다 하여 샘골이라고도 하였으며, 후에 정산리(井山里)로 부르게 되었다.

2) 월송(月松)

관동팔경인 월송정의 명칭과 관련한 전설은 울진지방에 현전하는 문헌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화랑이 유람하다가 우연히 이곳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라는 전설이며, 또 하나는 ‘신라시대 신선[화랑] 술량 등이 여기서 노닐고 쉬었다’라는 이야기이다. 또 하나는 ‘중국 월나라[또는 월산으로, 즉 월나라 산]의 소나무를 가져와 심었다’라는 것이며, 마지막은 ‘밝은 달밤에 소나무 그림자가 은은히 비추므로 월송정이라고 불렀다’라는 설이다.¹⁰⁾

10. 심현용, 2019, 「관동팔경 월송정의 창건과 유래」, 『박물관지25』,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